

성명: 박지현(Park Ji Hyun)

소속: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겸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 2-1011

전화번호: 010-5104-5015

전자우편: xuanpj@hanmail.net

기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王士禛의 『池北偶談』 ‘談異’ 분석

목차

1. 筆記, 세계인식의 틀로서의 이야기
2. 志怪, 傳奇, 그리고 談異
3. ‘異’ 경계의 확장
4. ‘異’ 경계의 내면화
5. 나오는 말

1. 筆記, 세계인식의 틀로서의 이야기

중국의 소설 내지 서사학에 있어 ‘필기’는 그 형식의 자유로움과 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차적인 개념 설정이나 분류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진지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학적 대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했다.¹⁾ 그 방대한 분량의 텍스트가 전해 오는 막중한 무게감에도 불구하고²⁾ 필기는 주로 ‘준(準)소설’ 혹은 ‘보조적 역사 자료’의 개념으로만 접근되었는데, 이는 또한 ‘허구’와 ‘사실’이라는 대립항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기존 중국 서사학의 입론 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흔히 중국학자들은 ‘필기’를 ‘필기소설(筆記小說)’ 혹은 ‘필기사료(筆記史料)’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³⁾ 이는 일정한 틀이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각종 다양한 이야기 담론들을 별도의 독립적인 언어 담론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설’ 아니면 ‘역사’라는 고도 담론의 하위 담

- 1) 여기서의 ‘筆記’ 개념은 1900년대 上海進步書局에서 출간된 『筆記小說大觀』 178종을 필두로, 이후 中華書局, 上海古籍出版社 등에서 출간된 주요 필기종간류들에 포함된 저서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필기는 주로 송대 이후 문인들이 신변잡기적 체험이나 건문, 개인적인 탐구나 분석, 정론 및 시사비평, 학술 및 문학비평, 인물평, 흥미 혹은 교훈적인 고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엮어놓은 책들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목록학에서는 대부분 ‘小說家’ 아니면 ‘雜家’에 편입되어 있으며, 서명에 주로 隨筆, 筆叢, 筆談, 筆錄, 雜錄, 雜記, 瑣記, 紀聞, 談叢, 叢說, 漫錄 등의 명칭이 들어가 있다.
- 2) 河北教育出版社에서 출간된 『歷代筆記小說集成』(周光培 編, 1993)에는 현대에서 청대에 이르는 필기집 총 751종이 수록되어 있고, 中國書店에서 출간된 『明清筆記史料』(2000)에는 명대 필기 279여종과 청대 필기 450여종이 수록되어 있다.
- 3) 다음 도표에서 정리된 기출간 필기 총서 목록을 살펴보면, 필기란 용어가 필기소설 혹은 필기사료란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1	筆記小說大觀	進步書局	1900년대
2	歷代史料筆記叢刊	中華書局	1959
3	明清筆記叢書	上海古籍出版社	1981
4	歷代筆記小說叢刊	齊魯書社	1985
5	四庫筆記小說叢書	上海古籍出版社	1991

론 내지 보조 담론으로 치부해버리는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서사 담론을 ‘역사’ 아니면 ‘소설’로 구분 짓고 그것의 가늠 잣대를 ‘사실’인가 ‘허구’인가로 적용해온 중국 서사학에 있어 사실과 허구를 가늠하기 이전의 이야기적 담론이 서있을 공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 이러한 담론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 아니면 ‘허구’로 재단되어 ‘준역사’ 아니면 ‘준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부여받고 귀속되어 왔다.

예컨대 유엽추(劉葉秋)는 『역대필기개술(歷代筆記概述)』에서 필기를 크게 ‘소설고사류(小說故事類)’, ‘역사쇄문류(歷史瑣聞類)’, ‘고거변증류(考據辨證類)’로 구분했는데,⁴⁾ 이러한 분류법이야말로 필기를 역사 아니면 소설로 귀속시키려는 전통적인 서사 이론의 관점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필기 텍스트 안에 ‘준역사’ 아니면 ‘준소설’로 분류되는 이야기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서술 방식상의 구분이 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 유익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 저자가 한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를 기록했다, 지어냈다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상반된 서술 방식을 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기의 저자는 직간접적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의미 있다 생각한 이야기들을 적었을 뿐이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에 달린 문제이다.

필기는 필기일 뿐, 사실이나 허구이냐의 잣대도 역사인가 소설인가의 귀속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오히려 필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서술 방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필기의 서술 방식은 언어 담론으로서의 ‘이야기’에 가장 닮아있다. 이야기는 주체적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언어 담론이다. 발화자에게 있어 이야기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 가치 여부를 떠나 절대적인 의미 생성, 주체 생성의 매개체이며, 그것이 청취자에 의해 어떤 의미,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점차 공적이고 사회적인 담론으로 전화되어 간다.

중국에서 필기의 저자는 대부분 어느 수준 이상의 문인(文人)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야기는 문인으로서의 자기 검열을 거친 상당히 지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필기의 주요 서술 방식 속에 ‘고거변증(考據辨證)’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지적 토대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필기라는 글쓰기 방식을 통해 세계에 대한 지적인 탐색과 주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인(文人)적인 네트워킹과 소통의 장을 형성했던 것이다.

필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만큼이나 자유로운 형식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재나 내용에 있어 일정한 규격이 없다. 몇몇 필기에서는 권별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기 구성의 한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필기 저자들에 의해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의 방만함에도 필기의 내용은 일정한 주제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이야기 주체로서 문인들이 대면하고 있었던 당시 세계의 분할적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국정(謝國楨)이 『명청필기담총(明清筆記談叢)』에서 시도한 필기의 분류 방식은 오히려 필기의 ‘이야기’, 즉 세계 인식의 틀로서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것으로 파

6	歷代筆記小說集成	河北教育出版社	1993
7	明清筆記史料	中國書店	2000

4) 劉葉秋, 『歷代筆記概述』, 北京出版社, 2003.

약된다. 그는 필기의 내용을 농업생산기술, 수공업과 상업 등의 경제, 정치제도와 전장제도 및 사회 풍습, 농민기의와 같은 사회변동이나 역사 사건, 소수민족, 역사지리와 자연지리 및 도시, 대외관계와 무역, 역사 문헌과 인물 전기, 과학기술과 공예 미술, 학술 업적과 학자 등으로 구분했는데,⁵⁾ 그 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필기가 문인들의 ‘이야기’로서 당시 지식 전반의 문제들을 아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문인들의 이야기적 지식 담론으로서 필기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 ‘기이한 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청(淸)의 왕사진(王士禛, 1634-1711)은 자신의 필기집인 『지북우담(池北偶談)』에서 ‘담고(談故)’, ‘담헌(談獻)’, ‘담예(談藝)’, ‘담이(談異)’로 구분되는 주제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필기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하고 ‘기이함’ 자체가 이야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⁶⁾ 여기서는 바로 그 『지북우담』 담이편(談異篇) 총 7권(卷) 399칙(則)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異)’의 개념과 의미를 검토하고, 기이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어떻게 문인적 지식 담론의 한 카테고리로 기능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고찰은 특히 ‘필기’를 ‘필기소설’로 명명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필기내의 ‘기이한 이야기’들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정을 시도함으로써, 필기를 허구와 사실의 잣대로 재단하며 소설 혹은 역사의 하위서사로 보는 관점에 대해 비판하려는 입장을 지닌 것이다.

2. 志怪, 傳奇, 그리고 談異

중국의 서사 전통에 있어 ‘기이한 것’에 관한 이야기는 지괴(志怪), 전기(傳奇)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서술의 대상인 ‘怪’, ‘奇’, 그리고 담이(談異)의 ‘異’가 지니는 함의에는 약간씩의 편차가 존재한다. 먼저 지괴의 ‘怪’는 현실의 ‘이 세계’와 대비되는 ‘저 세계’의 총칭이다. 이때 ‘이 세계’는 가시적이고 균일하며 예측 가능한 현실적 합리성으로 통일된 세계인 반면, 죽음·신령·요괴·어둠·밤의 표상들로 이루어진 ‘저 세계’는 이러한 합리성의 통일 밖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지괴에 있어 ‘저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그것의 이질성과 불가해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다. 그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체험담들이 축적되고 그로부터 ‘저 세계’에 대한 다양한 기의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엔 ‘저 세계’라는 하나의 자기 완결적인 기호 체계가 구축되기에 이르는데, 이 과정이 바로 ‘지괴’ 서사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괴 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세계’ 밖에 존재하는 ‘저 세계’를 이야기를 통해 탐색하고 장악하는 데 있다.⁷⁾

5) 謝國楨, 『明清筆記談叢』, 上海古籍出版社, 1991.

6) 康熙 신미년(1691) 가을 王士禛이 작성한 『池北偶談』 서문을 보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서문에 의하면, 그의 집안 서쪽 정원에 연못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시간이 날 때면 그곳에서 손님들과 함께 청량한 대나무 소리와 맑은 물에 노니는 물고기들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고 한다. 이때 그 이야깃거리는 문장의 유과와 경사의 뜻에서 국가의 제도와 역대 연혁, 명신대유들의 아름다운 언행에 이르기까지 두루 미쳤고, 혹 달빛 아래 술자리가 펼쳐지면 신선귀괴의 일로 안주거리를 삼고 유희오락에 관한 일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池上有亭, 形類畫舫曰石帆者, 予暇日與客坐其中, 竹樹颯然, 池水清澈, 可見毛髮, 遊儻浮沈, 往來於寒鑿之中, 顧而樂之, 則相與論文章流別, 晰經史疑義, 至於國家之典故, 歷代之沿革, 名臣大儒之嘉言懿行, 時亦及焉. 或酒闌月墮, 間舉神仙鬼怪之事, 以資嗚噓; 旁及遊藝之末, 亦所不遺. 兒輩從旁記錄, 日月既多, 遂成卷軸.) 王士禛, 『池北偶談』, 中華書局, 歷代史料筆記叢刊, 1982.

7) 필자는 ‘저 세계’에 대한 志怪의 서사적 포섭 과정에 대해 서사 자체가 지니는 제국주의적 속성과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줄고, 「중국의 서사전통과 현대화」, 『중국어문학』 51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8.6월, 참조.

반면 전기의 ‘승’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저 세계’의 총칭이다. 지괴에 있어 ‘이 세계’와 경계하고 있던 낯선 ‘저 세계’는 끊임없는 서사적 탐색과 구축에 의해 조금씩 ‘이 세계’로 편입해 들어온다. 이러한 서사 탐색에 의해 점차 ‘이 세계’의 동질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저 세계’는 더 이상 ‘이 세계’ 밖의 이질적이거나 낯선 대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 공존하는 존재가 된다. 이들에 대한 전기 서사의 목적은 더 이상 적극적인 탐색이나 새로운 기의를 구축하는 데 있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확장하고 형상화하는 데 있다.

「임씨전(任氏傳)」의 여우 임씨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의 개미 나라, 「곤륜노(崑崙奴)」의 곤륜노를 비롯하여 「앵앵전(鶯鶯傳)」의 앵앵에 이르기까지 전기가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상은 모두 어느덧 ‘나’의 세계로 들어온 ‘저 세계’의 낯선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요 목적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인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행동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전기는 그 서사의 초점이 여전히 ‘저 세계’적 존재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지괴의 서사 특성을 공유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서사의 목적이 ‘저 세계’적 존재에 대한 인식적 장악이 아니라 문자 언어를 통한 구체적 형상화에 있다는 점에서 그 담론으로서의 성격은 명확히 구분된다. 지괴는 낯선 세계, 낯선 존재에 대한 서사적 인식과 포섭의 적극성을 갖춘 지식적 담론의 서사이다. 반면 전기는 캐릭터 구성과 같은 낯선 세계 및 인물에 대한 형상 창조에 주력하는 까닭에 지식적 담론의 진취성보다 문학적 담론의 세밀함이나 구체성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기는 지괴의 서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갈라져 나온 문학적 담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필기 서사인 담이(談異)의 ‘異’는 ‘이 세계’ 속에 작동하는 ‘저 세계’의 모든 특성과 원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의 ‘기이함’이란 단순히 ‘저 세계’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세계’에 속하면서 ‘저 세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모든 존재, 현상, 상황에까지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담이, 즉 필기 서사에 대해 그것이 지괴적 지식 담론이나, 전기적 문학 담론이나를 논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괴적 지식 담론에 해당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담이가 지괴와 다른 점은 그 서사의 초점이 더 이상 ‘저 세계’ 자체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세계’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괴가 보여주던 낯선 세계에 대한 서사적 포섭의 적극성과 진취성은 다소 무더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담이의 ‘異’를 ‘이 세계’로 내면화된 ‘저 세계성’이라 정의할 때, 그것의 서사적 탐색은 바로 그 ‘이 세계’ 속에 숨어 있는 ‘저 세계성’을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탐색의 과정에서 일찍이 지괴가 보여줬던 적극적인 기의의 생산, 즉 ‘저 세계’라는 하나의 자기 완결적 기호 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괴가 수행했던 의미 생산의 기호화 과정들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세계’ 속에 숨어있는 ‘저 세계’의 기표들을 찾아내어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소통시킴으로써 2차적 의미로의 담론화, 즉 메타이야기를 시도하려는 이야기 주체의 의도가 새로운 서사 탐색의 목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담이는 과거 종교적·신앙적 성격이 강했던 지괴 서사가 세속화·사회화되면서 계승된 지식 담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⁸⁾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異’의 개념은 그 ‘기이함’의 경계가 한편으론 확장되고 다른 한편으론 내면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8) 전통적 논의 속에서 志怪는 종종 筆記의 범주 속에 포함되곤 했다. 그러나 傳奇는 筆記와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그 담론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異’ 경계의 확장

『지북우담(池北偶談)』 담이편(談異篇) 총 399칙⁹⁾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異’ 경계의 확장은 주로 ‘이 세계’ 즉 저자 자신이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기이한 현상이나 사건 등에 대한 서술 속에서 나타난다. 담이편의 이야기들 중에는 전통적인 지괴(志怪) 주제인 신귀괴이(神鬼怪異), 인과응보, 참위예언 외에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들에 관한 것이 많은데, 그러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모두 매우 비일상적이라는 데에 있다. 가령 아래 소개한 일곱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나이가 123세 혹은 147세에 이른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 쌍둥이나 장수 노인의 경우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다.¹⁰⁾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는 담이편이 아닌 담고(談故)편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국가 제도나 관직, 연혁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담고편에서는 옛날 남당(南唐) 때 강국보(康國輔)가 아들 세쌍둥이를 낳자 왕이 상서로운 일이라며 모두 장군에 봉하고 ‘천추강씨(千秋康氏)’라 불렀다는 고사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아들 세쌍둥이는 비교적 흔한 일이어서 포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¹¹⁾ 하지만 담이편의 조목에서는 현실적으로 쌍둥이에 관해 나올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

명 천계 연간에 대명(大名, 하북)의 한 민가에서 일곱 쌍둥이를 낳았는데 모두 잘 자랐다. 매번 병이 나면 일곱 명이 같이 아팠다. 왕비부(王比部, 이름 승)가 천웅(天雄, 하북)에 살 때 그 셋째를 보았다고 한다. 강희 무신년(1668)에는 안휘 순무 장중승(張中丞, 이름 朝珍)이 흡현(歙縣)의 백성 오사전(吳士全)의 처 여씨(呂氏)가 네쌍둥이를 낳았다고 보고했다. 동년(同年)인 이망석(李望石, 이름 贊元)은 순치 연간 초(楚)를 다스릴 때 한천현(漢川縣, 호북)의 백성 왕모의 처가 여섯 쌍둥이를 낳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 북위(北魏) 연흥(延興) 3년에 수용군(秀容郡, 산서)의 한 부인이 네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네 번 출산에 16명의 아들을 얻었다고 하니 이와 유사하다.¹²⁾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쌍둥이나 장수 노인에 관한 이야기는 그 지역 지방지나 관리의 상소문 등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왕사진(王士禛)이 필기를 통해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담론화한 것은 바로 ‘이 세계’ 속에 숨어있는 ‘기이함’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소통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담론 생산의 주체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곱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이 단순히 지방지나 관리의 보고서 속에 머물러 있는 한, ‘기이함’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이 같은 담론화의 과정을 거쳐 이야기적으로 환기되었을 때 비로소 ‘기이함’의 대상으로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9) 『池北偶談』의 談異篇은 총 7권으로 전체 권수 제20권에서 제26권에 해당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총 399개의 이야기는 전체 칙수 제894칙에서 제1292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10) 장수에 관한 이야기로는 21卷 985則의 「杜氏」, 22卷 1064則의 「響豆」, 26卷 1260則의 「一家上壽」, 26卷 1285則의 「陳丈人」 등이 있다.

11) 「千秋康氏」: 本朝順治已來,直省民間一產三男者,歲有數十,多不勝紀.定例官給米三石、布十疋而已.按南唐時,金陵人康國輔娶司馬氏,一產三男.唐主以爲瑞,皆封將軍,號千秋康氏.《柳子厚集》有爲廣南鄭尚書奏百姓一產三男狀,侈爲休徵,想爾時此事絕少,故以爲祥瑞,而優異如此.『池北偶談』4卷 193則.

12) 「一生七子」: 明天啟中,大名民家一生七子,俱成立.每疾病,則七人同之.王比部(令)少寓天雄,猶及見其第三子云.康熙戊申,安徽巡撫張中丞(朝珍)疏報歙縣民吳士全妻呂氏,一產四子.同年李望石(贊元)說:順治中按楚,有漢川縣民王某妻,一產六子.按北魏延興三年,秀容郡婦人一產四男,四產十六男,與此相似.『池北偶談』21卷 993則.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이야기는 ‘아이를 낳은 남자’에 관한 것이다.

북건총병관(福建總兵官) 양부(楊富)에게 연동(變童)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낳았다. 양부는 이들을 자식으로 삼고 천사(天舍), 지사(地舍)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위유도(魏惟度, 이름 憲)가 이들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양부는 강서제독(江西提督)을 지냈다. 최근 악릉(樂陵)의 남자 범문인(范文仁)도 아들을 낳았는데 처남 장빈공(張賓公, 이름 實居)이 직접 보았다고 한다.¹³⁾

이 같은 성전환 내지 성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왕사진 자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지 답이 편 내 다른 조목에서도 남자가 된 여자, 혹은 여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¹⁴⁾ 이런 양성인(兩性人)들은 현실에 분명 목격되는 것이기는 하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매우 위험하고 기이한 존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 사회 내에서 일련의 상식과 섭리를 거스른 위험하고 기이한 존재들이 출현을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 ‘낯섬’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을 문화적 해석의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가령 “강희 경술년 육합현(六合縣)의 백성 왕진(王振)의 집 뜰 나무에 흰 까마귀 두 마리가 태어났다”고 하면,¹⁵⁾ 무엇보다 그 새가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기이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동물의 행태가 동물답지 않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실족한 나무꾼을 돌봐준 호랑이라든지,¹⁶⁾ 두부만 먹는 호랑이,¹⁷⁾ 옛 주인을 찾아간 노새,¹⁸⁾ 주인을 따라 죽은 원숭이,¹⁹⁾ 불경을 듣고 채식을 하는 거위²⁰⁾ 등의 기이함은 그들의 예사롭지 않은 행태가 일련의 인문적 윤리성으로 포장되어 이미 일정한 문화적 코드로 환원된 즉 담론화된 기이함이라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담이편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일련의 동물들은 그것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건너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이하기도 하다. 예컨대 섬라국(暹羅國, 태국)에서 조공으로 들어온 육족구(六足龜)²²⁾라든지, 하란(荷蘭, 네덜란드)의 소우(小牛), 수초국(數楚國)의 매우(每牛)와 유인국(兪人國)의 수마(雖馬)²³⁾ 등은 전적으로 중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동물들은 그 자체로 기이한, 아직 이 사회의 문화적 코드를 획득하지 못한 순수 ‘낯섬’ 내지 ‘신기함’의 대상들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아들을 낳은 남자’와 같은 양성인의 경우, 그들은 아직 이러한 문화적 코드를 획득하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은밀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까닭에 선부른 문화적 해석이 유예되고 있었던 기이함의 대상으로 보인다. 예컨대 담이편에는 키가 한 자 남짓, 또는 두 치 정도 되는 소인(小人)들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그들은 대

13) 「男子生子」: 福建總兵官楊富有變童,生二子,楊子之,名曰天舍、地舍,魏惟度(憲)親見之.楊歷官江西提督.近樂陵男子范文仁,亦生子,內兄張賓公(實居)親見之.『池北偶談』24卷 1129則.

14) 『池北偶談』24卷 1142則, 「女化男」과 1193則 「女化男」 참조.

15) 「白鳥」: 康熙庚戌,六合縣民王振家庭樹產白鳥二,督府麻勒吉表進於朝.『池北偶談』20卷 905則.

16) 『池北偶談』20卷 925則 「義虎」.

17) 『池北偶談』20卷 930則 「周府馴虎」.

18) 『池北偶談』20卷 918則 「義羸」.

19) 『池北偶談』21卷 953則 「鐵漢和尚」.

20) 『池北偶談』22卷 1021則 「靖州鷄鵝」.

21) 이는 志怪 속의 동물, 주로 호랑이, 여우, 뱀 등으로 집약되는 ‘저 세계’의 동물들이 ‘이 세계’의 문화적 코드로 포장되지 않고 단순히 ‘저 세계’라는 기호 구축의 일환으로 다뤄졌던 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2) 『池北偶談』20卷 902則 「六足龜」.

22) 『池北偶談』20卷 918則 「義羸」.

23) 『池北偶談』21卷 940則 「每牛雖馬菌人蜉人」.

체로 일정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²⁴⁾ 인상적인 수염과 눈썹, 심지어 관(冠)을 쓰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며 노래를 할 줄 아는 등의 이미지로 수렴되는 이들 난장이의 모습은 이미 그들에 대한 문화 해석, 즉 담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화의 보다 확실한 예는 소수 민족에 관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가어(家語)》에서 말하길, 말은 열두 달 만에 태어나고 개는 석 달, 돼지는 녀 달, 원숭이는 다섯 달, 사슴은 여섯 달, 호랑이는 일곱 달, 벌레는 여덟 달 만에 태어난다고 했다. 《회남자(淮南子)》에서도 이를 인용했다. 《위략(魏略)》에는 황우강(黃牛羌) 족이 여섯 달 만에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고, 《광지(廣志)》에는 요민(僚民)이 일곱 달, 《촉군기(蜀郡記)》에도 요(僚) 부족이 일곱 달 만에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으니 모두 짐승의 종류라 하겠다.²⁵⁾

주변의 이민족들을 그 임신 기간의 짧음을 근거로 아예 ‘짐승의 종류’라고 선언한 이 언술이 전혀 무색하지 않게, 답이편 이야기 속의 소수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과 짐승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그들의 기이함은 바로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동물도 아니라는 데에 있는데,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까닭에 그들은 중원의 문명화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동물과의 비상한 소통 능력을 지녔다. 이는 심지어 ‘호랑이로 변한 여인들’의 이야기에서처럼 단순한 소통 능력이 아닌 완전한 동화 내지 귀화 능력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²⁶⁾

결론적으로 ‘異’ 경계의 확장은 필기 서사가 ‘이 세계’ 자체의 기이함으로 이야기의 경계를 확대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계 속의 저 세계성’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이야기의 경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야기의 확대라기보다 내면화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본래 ‘저 세계’를 포착하려는 이야기의 시선이 ‘이 세계’의 경계 밖으로 발산되지 않고 그 내부로 수렴되면서 찾아낸 새로운 공간이 바로 ‘異’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라는 이미 자아화된 내부의 공간 속에서 다시 이질적이고 불가해적인 요소를 찾아 포착하려는 이야기의 욕망이 바로 ‘필기’라는 새로운 이야기 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괴에 있어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삶과 죽음으로 구분되는 절대적 경계의 세계였다면, 필기에 있어 ‘이 세계’와 ‘저 세계’는 문화적 자아와 타자라는 상대적 경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필기의 담이는 현실의 이질적인 문화 요소들을 포착하여 담론화함으로써 문화적 자아와 동질성을 확대하기 위한 이야기적 주체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4. ‘異’ 경계의 내면화

필기에 나타나는 ‘異’ 경계의 확장이 실은 ‘이 세계’로의 내면화에서 비롯된 것임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異’ 경계의 내면화는 흔히 신귀괴이, 인과응보, 참위예언과 같은 전통적인 지괴 주제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흔히 ‘도사’라고 불리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괴에 있어 이러한 도사 내지 도인들의 존재

24) 小人에 관한 이야기로는 『池北偶談』 22卷 1006則 「短人」, 24卷 1147則 「短人」, 26卷 1264則 「物異」, 26卷 1269則 「心頭小人」, 26卷 1271則 「小獵犬」.

25) 「獸種」: 《家語》曰: 馬十二月而生, 狗三月而生, 豕四月而生, 猿五月而生, 鹿六月而生, 虎七月而生, 蟲八月而生. 《淮南子》本此. 《魏略》云: 黃牛羌種, 孕身六月生. 《廣志》云: 僚民皆七月生. 《蜀郡記》云: 諸僚娠七月生, 蓋獸種也. 『池北偶談』 23卷 1105則.

26) 『池北偶談』 26卷 1259則 「化虎」.

는 저 세계를 꿰뚫어보거나 제압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이 아닌 이상 그를 내칠 수 없는 신비적 지혜와 힘의 존재이다. 그러나 담이편에 등장하는 도사들은 그저 이 세계의 여러 기이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장헌적(張獻賊)의 군중에 늙은 신선이 있었다. 본래는 등주(鄧州, 하남) 진씨(陳氏)의 아들로 어려서 종남산(終南山)에 유했다가 어떤 도사를 만나 이술(異術)을 전수받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헌적에게 채용되었다. 한번은 헌적의 감군(監軍) 손가망(孫可望)이 술에 취해 애첩을 베었는데 그가 도규약을 쓰니 일어났다. 이후 헌적의 무리들이 그를 신선이라 불렀다. 얼마 후 헌적이 실수로 그 애첩을 베어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창자가 나오자 진도사를 불러 살려내라 했다. 그가 창자를 집어넣고 침으로 꿰뚫 후 약을 바르고 목판 사이에 끼워 새끼줄로 묶어놓자 7일 만에 소생했다. 장헌적이 패한 후 진(滇, 운남)땅으로 들어가 병사했다.²⁷⁾

이처럼 필기 속의 도사는 의술이나 양생 등에 있어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 저 세계를 장악하거나 간파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심지어 ‘장도인(張道人)’의 경우처럼, 나이는 백 수십에 이르지만 얼굴은 청년이고 놀랄만한 예지력도 있으며 하루에 3백 리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뭘 물으면 자기는 미친 사람이라고 내뱉고, 특히 숭정(崇禎) 말 도적들에게 욕을 보인 후로는 그 능력이 반감되어 하루에 백 5,60리 밖에 가지 못하는 도인도 있다.²⁸⁾

이와 같은 전통 지괴 주제의 속화(俗化)는 꿈을 통한 예언이나 징조, 점복, 또는 정수(定數)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이야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애초에 이러한 행위들이 목적했던 삶과 죽음에 관한 본원적인 탐문이 이젠 더 이상 이야기의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삶에 좀 더 밀착된, 가령 과거나 출사, 결혼과 같은 삶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러한 신앙적 행위와 연계되어 이야기의 중심 화제를 구성하고 있다.²⁹⁾

담이(談異) 이야기의 이러한 경향은 이야기 대상으로서 ‘異’의 경계가 ‘이 세계’ 즉 일상적인 우리 삶의 영역으로 확장 내지 내면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괴란 서사 장르가 생성되던 당대(唐代) 이전 사회에 비해 송대(宋代) 이후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저 세계’에 대한 종교성이 퇴조하면서 일련의 종교적 영역의 행위들이 세속화·사회화·문화화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속화의 경향은 ‘이 세계’ 사람들의 ‘저 세계’적 체험 내지 그 접촉에 관한 이야기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과거 지괴에 있어 그러한 체험이 몇몇 제한된 사람들, 가령 종교적으로 무장된 도사나 승려 외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거나 담대한 인물에 국한돼 있었던 것에 비해 필기의 경우는 보다 대중화되고 우연적인 상황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

27) 「老神仙」: 獻賊軍中有老神仙者, 本鄧州陳氏子, 少遊終南, 遇一道士, 授異術, 能生死人, 後為獻賊所得. 賊監軍孫可望被酒, 刃其嬖妾, 以刀圭藥投之立起, 於是賊中呼為神仙. 既而獻賊誤刃其愛妾, 洞脇潰腹, 復俾陳活之, 納其腸, 以鍼紉之, 傳以藥, 夾以木版, 以繩約之, 七日而甦. 獻賊敗, 入滇, 以病死. 『池北偶談』 24卷 1167則.

28) 「張道人」: 商丘高辛鎮有道人, 嘗周遊歸德屬邑, 貌類少壯, 雖長老自童幼見之, 形容不改, 莫知其年. 自云張姓, 鹿邑人, 居少林若干年, 武當若干年, 勞山若干年, 屈指百數十年矣. 一日, 募修某祠廟需石灰千斤, 人問所出? 曰自有之. 忽至一寡婦姑媳門求布施, 以孀且貧辭. 道人曰: “門前槐樹旁有灰三千斤, 何云無也?” 如其言掘之, 果然. 或問曰: “渠先祖建樓所餘, 我常見之, 其家不知也.” 頗能前知. 有問之者, 則曰: “我是顛子, 我是顛子.” 日可行三百里. 崇禎末, 袁賊亂梁宋間, 致道人, 縛置地上, 驅所掠婦女裸體淫之, 遂敗其道, 日行僅百五六十里, 亦穀食矣. 語人曰, 譬桶子已破, 再箍便難. 『池北偶談』 24卷 1170則.

29) 『池北偶談』 談異篇의 총 399則 이야기 가운데 예언이나 징조, 점복, 定數에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거 급제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아래 「단장초(斷腸草)」 이야기에서처럼, 귀신의 언질이나 우연찮은 방문(복수를 위한 방문이 아닌)은 상황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든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희 경신년(1680) 봄, 방씨(方氏) 성을 가진 휘주(徽州) 사람이 경성에서 장사를 하고 그 무리 8인과 함께 수천 금(金)을 싣고 강남으로 가는 길에 하간(河間, 하북)의 남쪽 역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 8인과 노새 대장이 먼저 밥을 먹고 방씨는 소식(素食)을 하느라 혼자 뒤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밥을 먹다가 “단장초(斷腸草)”라고 세 번을 말했다. 방씨가 괴이하게 여겨 “당신은 밥에 단장초가 있다는 것을 아시오? 그럼 먹어선 안 되지 않소.”라고 하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했다. 순간 노새 대장을 보니 이미 중독된 듯 땅에 고꾸라져 있었다. 방씨가 급히 소리 치자 사람들이 모두 젓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직접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의사를 오게 하니 바로 단장초에 중독되었다는 것이다. 급히 해독을 해서 모두 살아났으나 그 대장만은 유독 많이 먹은지라 구하질 못했다. 방씨가 그 사람에게 어찌된 일인지를 물어보니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단장초라고 세 번을 알려줬소.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요. 처음엔 잘 몰랐소.”라고 했다. 상인들이 이 사건을 관에 고발하려 했으나 그곳 사람들이 힘껏 청탁을 하는 바람에 그 주인은 노새꾼들에게 다만 백 금(金)을 던져주고 빠져나갔다.³⁰⁾

이로 보건대 ‘異’ 경계의 확장 내지 내면화는 결국 그것의 ‘세속화’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저 세계’에 대한 이야기적 욕망이 세속적 ‘저 세계성’에 대한 메타이야기적 욕망으로 전화한 것이 바로 지괴에서 필기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지북우담(池北偶談)』 담이(談異)의 ‘異’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 담론으로서 ‘필기(筆記)’ 서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기이함’의 이야기 전통은 ‘지괴(志怪)’와 ‘전기(傳奇)’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필기는 지식 서사 담론인 지괴의 계통을 계승한 것으로 문학 서사 담론인 전기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하지만 지괴 서사의 목적이 ‘이 세계’와 대비되는 ‘저 세계’를 탐색하고 그것을 자기 완결적인 하나의 기호 체계로 구축하는 데 있었다면 필기는 ‘이 세계 속에 숨겨진 저 세계성’을 포착하여 그것의 2차적 문화 의미를 담론화하는 데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지괴를 ‘저 세계’ 중심의 종교적 담론으로, 필기를 ‘이 세계’ 중심의 사회적 담론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의 대상인 ‘기이함’의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저 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서사의 관심이 ‘이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경계의 확장’이라 할 수 있고, 그 관심의 방향이 외부로의 발산이 아닌 내부로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경계의 내면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이야기적 욕망의 세속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괴의 이야기 주체는 ‘이 세계’ 밖의 ‘저 세계’-이는 곧 ‘나’와 경계하고 있는 ‘너’의 세계, ‘기지(既知)’와 경계하고 있는 ‘미지(未知)’의 세계이기도 하다-에 대한 서사적 인식 내지 포섭의 욕망이 두드러졌지만, 필기의 이야기 주체는 ‘이 세계’ 내부의 ‘저 세계’, 즉 자

30) 「斷腸草」: 康熙庚申春, 有徽人方姓者, 商於都門, 與其徒八人合貲累千金往江南, 次河間之南腰站, 宿焉. 其八人者, 與驛夫先食, 方以齋素獨後. 忽一人且食且語曰: “斷腸草.” 如是者三. 方怪而問之曰: “君知食中有斷腸草乎? 宜勿食.” 其人曰然. 隨視驛夫, 已如中惡狀仆地矣. 方急呼, 衆人皆停筋, 而身自走通衢, 呼集居人, 召醫視之, 曰中毒也. 急解之, 皆甦. 而驛夫食獨多, 遂不救. 方因問某, 曰: “食時若有人在後告以斷腸草者三, 聽其語, 隨出諸口, 初不自知也.” 諸商欲鳴之官, 居人力挽之, 僅以百金賂驛綱, 其主人竟漏網. 道路間不可不知. 『池北偶談』 24卷 1181則.

아화된 내부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타자성에 대한 문화적 동질화의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청(明清) 시기 이 같은 필기 담론의 형성은 이야기 주체로서 문인(文人)들의 세계 인식 및 맥락과 의미의 구성을 크게 활성화시켜 일상적인 지식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한 듯이 보인다. 더구나 그것은 근대 이전 유력한 사회적 여론의 장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큰데, 19세기 후반 중국의 근대 신문이 그 담론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문인 필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쩌면 필기의 전통이 중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³¹⁾

<참고문헌>

- 王士禛, 『池北偶談』(上下), 中華書局, 歷代史料筆記叢刊, 1982.
周光培 編, 『歷代筆記小說集成』, 河北教育出版社, 1993.
『明清筆記史料』, 中國書店, 2000.
劉葉秋, 『歷代筆記概述』, 北京出版社, 2003.
謝國楨, 『明清筆記談叢』, 上海古籍出版社, 1991.
苗壯, 『筆記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8.
문정진 외 7인, 『중국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박지현, 「중국의 서사전통과 현대화」, 『중국어문학』 51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8.6월.
차태근, 「19세기 중국 신문잡지와 文界의 재편」, 『중국문학』 5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8월.

영문제목:

Talking about the Strange: An Analysis of the "Tanyi" 談異 Chapters of Wang Shizhen's *Chi bei ou tan* 池北偶談

영문키워드:

the strange, Biji(筆記), Zhiguai(志怪), Chuanqi(傳奇), narrative, context, discourse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ji* 筆記 narrative as storytelling discourse, focusing on the concept of "the strange" in the "Tanyi" 談異 (Talking about the strange) chapter of *Chi bei ou tan* 池北偶談 (Casual talks on the north of the pond). In China, the tradition of "strange" stories goes back to *zhiguai* 志怪 and *chuanqi* 傳奇. *Biji* is in the tradition of *zhiguai*, the intellectual narrative discourse, and thus is distinguished from *chuanqi*, the literary narrative discourse.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zhiguai* and *biji*: while the goal of *zhiguai* is to explore "the other world" that contrasts with "this world" and construct a

31) 중국의 근대 신문으로는 19세기 말 상해 조계지에 발행된 『點石齋畫報』 참조. 문정진 외 7인, 『중국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한편 차태근은 「19세기 중국 신문잡지와 文界의 재편」이라는 논문에서 19세기 후반 서구의 근대 신문 잡지가 들어올 당시 중국에서 그와 가장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매체는 필기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문학』 56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8.8월.

self-contained system of signs of that world, the goal of *biji* is to grasp the "otherworldliness hidden in this world" and create discourses on its secondary cultural meanings. In this sense, we may consider *zhiguai* as religious discourse that focuses on "the other world," and *biji* as social discourse that focuses on "this world."

In terms of the change in the boundary of "the strange," *biji* narrative's interest in "this world" means the extension of the boundary drawn by *zhiguai*, which focuses on "the other world." It also signifies the internalization of the boundary in the sense that the direction of the extension is inward rather than outward.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is the secularization of the narrative interest: while the narrators of *zhiguai* aspire to recognize and apprehend "the other world," i.e. the world of "you" and "the unknown" as opposed to the world of "I" and "the known," the narrators of *biji* have a strong desire to culturally assimilate the otherworldliness that exists in the subjective space.

Also worth noting is that, in the Ming-Qing period, the formation of the *biji* discourse seems to enabled the literati, the subject of narration, to constitute the context and discourse of the world, and thus have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usual intellectual communication. Moreover, it is very plausible that the *biji* discourse functioned as the major site of public opinion during the pre-modern era. It is probably because the *biji* tradition was deeply embedded in Chinese society that modern Chinese newspapers in the late 19th century, formed under strong Western influences, seems to be not very far from the literati *biji*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discourse and the contents.